

진청 二八六~二九三

閨秀三人

黃眞(황진)

二八六. 靑山裏碧溪水 | 야수이감을자랑마라 / 一到滄海면도라오기어려오니 / 明月
이滿空山히수여간들엇더리

▷청산리 벽계수야 쉽게 흘러감을 자랑마라 한번 푸른 바다에 닿으면 돌아오기 어려우니
밝은 달이 빈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리

▶靑山裏 碧溪水: 푸른 산 너머 푸른 물 滿空山: 공산에 가득 찼다는 뜻
一到滄海: 한번 푸른 바다에 닿으면 수여간들: 쉬어간들

二八七. 冬至入돌기나긴밤을한허리를버혀내어 / 春風니불아레서리서리너헛다가 / 어
론님오신날밤이여든구뵈구뵈퍼리라

▷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중간을 베어내어 따뜻한 이불 아래 차곡차곡 넣었다가 사랑하는
님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퍼리라

▶한허리: 한중간, 한중동 서리서리: 차곡차곡
春風니불: 따뜻한 이불 어론 님: 정든 님, 얼은 님

二八八. 내언제無信히여님을언제소것관디 / 月沈三更에온뜰이전혀업니 / 秋風에지
는넙소리야넌들어이히리요

▷내 언제 믿음이 없어 님을 언제 속이었길래 달도 진 이 밤에 오는 기미가 전혀 없나 가
을바람에 지는 낙엽 소리에 놀라는 것이야 나인들 어찌 하리요

▶月 三更: 달도 진 밤 온뜻이: 오는 기미가
넙소리: 잎소리

小栢舟(소백주)

二八九. 相公을뵈은後에事事를밋조오매 / 拙直흔ㅁ음에病들가念慮ㅣ려니 / 이리마져
리차히시니百年同抱히리라

▷대감을 뵈고부터 모든 일을 다 믿고 의지하려 하오나 / 특별한 반응이 없으셔서 아녀자
의 웅졸한 마음이라 대감의 무관심이 내 몸에 병이 될까 걱정이더니 / 드디어 이견 이렇고
저견 저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평생을 온 정성 다 바쳐 모시오리다

▶相公: 정승(朴燁) 百年同抱: 백년을 같이 사는 것 拙直한: 고지식한, 웅졸한

지은이 소백주는 평양 출신의 기생으로 광해군 당시 평양에서 활동하였다. 그 당시 박엽은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. 규율을 확립하고 국방을 굳게 하여 재직 6년 간 외침이 없었다. 어느 날 박엽은 귀한 손님과 장기를 두며 시조를 읊게 하였다. 소백주는 장기알의 글자를 이용하여 멋지게 시를 짓는다.

<참고>

상궁(象宮)을 뵈은 후에 사사(士士)를 믿자오매
졸(卒)직한 마음에 병(兵)들가 염려더니
이리 마(馬) 저리 차(車) 하시니 백년동포(包) 하리라

매 화(梅 花)

二九〇. 梅花넛등걸에봄절이도라오니 / 네뽕던柯枝에피염죽도흐다마는 / 春雪이亂紛
紛흐니필동말동흐여라

▷매화나무 옛 등걸에도 봄이 다시 돌아오니, 옛날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 가지에, 다시 아름다운 꽃이 필 만도 하다면은, 봄눈이 어지럽게 내리니 필지 말지 하구나.

▶梅花: 매화나무와 작자 자신의 이름

春雪이亂紛 흐니: 봄눈이 어지럽게 흩날리니 필동말동: 필지말지

영조조 기생 매화와 황해도 관찰사였던 어윤겸과 곡산 사또였던 홍시유와의 사랑 얘기에
서 비롯된 시조이다.

年代欠考(연대결고)

임 진(林 晋): 中宗年間

二九一. 활지어폴헤걸고칼ᄇ라녀페치고 / 鐵瓮城邊에筒盖(筒)베고누어시니 / 보완다보
괴라솔의에즘못드리하노라

▷활대에 시위를 얹어 팔에 걸고 칼을 잘들게 갈아 옆에 차고서 철옹성변에 화살 꾸러미
를 베고 누웠으나 '본다 보았다' 하는 군호 소리에 잠을 자기가 어렵구나

▶鐵瓮城邊(철옹성변): 평북영변에 있는 성, 철통같이 튼튼한 성곽 언저리

筒箇(통개): 화살을 넣고서 메고 다니는 가죽부대

보완다 보괴라: '본다 보았다' 라고 외치는 소리, 군호

이중집(李仲集): 숙종조 閒散人, 李仲樂은 이중집의 誤記임.

二九二. 뉘라셔날늙다논고늘근이도이러호가 / 꽃보면반갑고蠶보면우웁난다 / 春風에
훗느논白髮이아넨들어이호리오

▷그 누가 날 늙었다고 하는가. 정말로 늙은이면 이러할까. 고운 꽃 보면 반갑고 잔을 들
면 웃음이 절로 난다. 그러나 나이를 속일 수 없음인지 봄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이야
나인들 어찌 할 수 있겠느냐!

▶훗 : 흩날리는 어이호리오: 어찌 하겠는가. '어이'는 '어찌'의 옛말

김천택은 『청구영언』 편찬에서 有名氏의 끝에 '年代欠考'欄(란)을 설정하고 임진, 이중집,
서호주인 등 세 사람의 작품을 각각 1수씩 실고 있다. 이중집의 現傳作品은 이 한 수 뿐인
데, 이 작품은 여러 歌集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널리 유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 이
중집은 『海東歌謠』의 '作家諸氏'에는 성명만 기록되어 있고, 약력은 없다. 『靑丘永言』
(洪氏本)에서 '閒散人(한산인)'欄에 그의 작품을 수록한 것, 『大東風雅』에 '肅宗朝名歌'라
소개된 것 등에서 감안할 때, 그 역시 肅宗(숙종)·英祖期(영조기)에 활약하던 唱歌者일 것

이다.

서호주인(西湖主人): 茂豊君(무풍군) 李攄(?~1504)

茂豊正 攄

二九三. 이몸이쓸디업서世上이벗리오매 / 西湖넷집을다시쓸고누어시니 / 一身이閑暇
홀찌나님못뵈와호노라

▷이 몸이 쓸데없어 세상이 날 버리니 서호의 옛집을 다시 쓸고 누웠으니 이 몸이 한가하
지만 님을 그리워하노라